

드림꽃편지 627

2021.4.20. 곡우호

<http://cyw.pe.kr> 햇별같은집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산책을 하다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잠시 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와서 앉아 있다가 오는 버스를 타고 떠납니다. 예쁜 아가씨를 보면 한번 더 쳐다 보기는 하지만 아무런 감정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총각이었다면 혹시 '운명같은 만남?' 그런 기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조차도 없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아가씨보다 해맑게 웃으면서 친구들과 재잘거리며 지나가는 여학생들이 더 귀엽게 느껴지는군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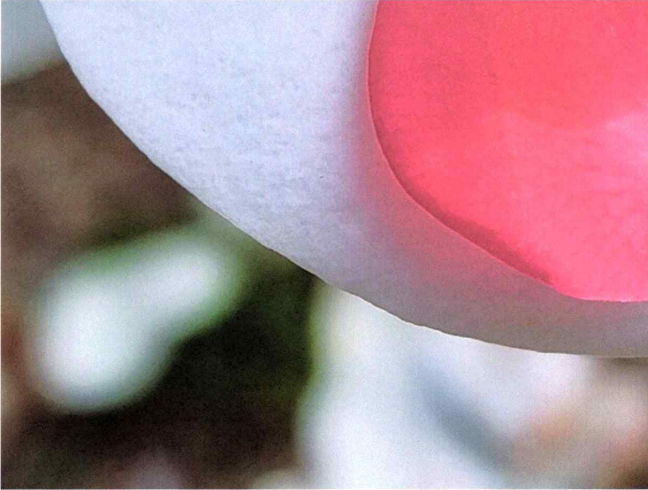


집으로 돌아오니 들어오든 나가든 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시크한 여인이 대충 입을 모습으로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저녁준비를 하는군요. 아까 정류장에서 본 여자와 저기 있는 여자가 똑같은 '여자'인데 왜 다를까요? 정류장 여자는 인류애적으로 사랑하는 여자라면, 저기 여자는 운명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여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사람과 사람을 끌어당겨 접촉시키는 어떤 '끌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란 서로의 사이에 '자기장'같은 것이 있어서 웃음, 정, 마음을 끌어오고 끌려가며 주고받고 왔다갔다 교감을 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서로 단절되거나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이 된다면 그때부터 고독과 불행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낌없이 주고 싶어집니다. 줌으로써 기쁘고 풍성해집니다. 그것이 사랑의 논리요, 사랑의 신비(神祕)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일4:8) 서로 사랑하면서 생기는 그 '끌림'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신비를 묵상한 최용우 올립니다.



"여름이 아닌 가을이
가을을 향할 수 있는 모든
희망을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대재심채호
제주 4.3을 기억하자

글/신채호
글씨/최광열

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다.

오,
놀라운 세상!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 18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아파트를 내려 오시더니 경비실 문을 엽니다

“나 택시 좀 불러줘.”

“어디 가지게요?”

“병원에”

“추운데 들어오셔서 기다리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온 몸이 다 아퍼.”

목회할 때 우철분 할머니 집사님께서 한달 째 교회를 못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상포진이 살 속으로 들어가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촌에서는 이것을 띠담이라고 하는데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많이 걸리며 온몸을 여기저기 돌아 다니면서 심한 통증을 준다고 합니다.

금방 나오면 좋겠는데 병원을 가도 신통치 않고 그냥 신경 통증이 빠져 나가기 까지 마냥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찾아가 계속 기도하여 드렸습니다.

며칠 지난 주일 우철분 집사님이 교회 나오셨습니다. 강단으로 올라갈 때 집사님께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주셔서 다 낫았슈” 모두들 “그려 그려” 하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강단에 올라가면서 흐뭇하였습니다. 기뻐하였습니다. 우쭐거렸습니다.

“그래 나뻑에 없지.”

“주님! 주님이 하신 걸 내가 하였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우쭐거리고 교만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셨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셔유?”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짜통을 경계하라

어느 시골에서 참깨 농사를 하던 한 부부가 서울로 올라와 시중에 판매되는 참기름을 먹어보고 통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참기름이 낙화생 기름을 섞거나 저질의 수입 깨를 섞어서 만든 가짜 참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토종 참깨로 참기름을 짜서 같은 가격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이 적어도 그렇게 신용을 지키면 손님이 많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가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가 만든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고 소문났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고 살아와서 진짜 참기름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짜통 교회가 많고, 짜통 목회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짜통 교회, 짜통 목회자는 진짜를 뺏칠 정도로 잘 만들어 진짜처럼 전하고 가르칩니다.

갈수록 세상은 진짜는 사라지고 가짜는 판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짜 복음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적으로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진짜 참기름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상한 복음에 맛에 빠져 있어서 진짜 복음을 전해주어도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므로 진짜 목회자로 목회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외쳤던 사도 바울의 증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가 와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벗어난 복음이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1:6-8)



그러면 가짜가 판치고 진리가 왜곡되어져 가는 시대에 진짜 교회, 진짜 목회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열매를 통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7:20)

열매는 그 교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열매는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성경적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보다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복신앙을 전하고, 은사와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탈성경화를 강조하고,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고재봉 목사 (기쁨이있는교회)

〈천국이있는풍경〉 <https://cafe.daum.net/wccr>

왜 나만?

주님!
저녁 잠자리에서
아이들을 안고 기도합니다.
먼저 큰아이를 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작은아이를 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작은아이 좀 보세요.
분명히 순서대로 둘 다 똑같이
안고 기도해주는데도
“왜 나만 늦게 기도해줘요?”

주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교회는 한 몸이며 지체입니다.
그런데 지체끼리 왜 그렇게
서로 경쟁과 시기와 판단이 많을까요.
먼저 성장한 교회는 그것이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로 된 줄 알아요
그저 주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되어간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자랑하고 권세를 부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최용우 제4시집<내영혼이 주를 찬양 365> 中

[덧글]

은형 /주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되어가는 것이니 자랑하고 권세를 부릴 일이 아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지체끼리 서로 시기하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정말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마음 편히 주님 만나고 은혜받고 서로 사랑하고 그랬으면.....

자유지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148.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해도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착한이나 악한이를 나누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세속적이고도 현세적인 축복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변치 않는 선물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로마인들에게 희생된 유대인들의 영광을 드높인 것은 마땅하다 할 수 있는데, 로마인들은 덕성으로 세속적인 영광을 좇았기에 참된 영광과 영원한 나라를 주신 분을 죽이고 배척한 유대인을 정복할 수 있었다.

149. 명예욕과 지배욕의 차이

하나님의 자비로 진정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자들을 다스리는 기술을 갖추고 권력을 갖는 경우가 인간사에서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승에서 아무리 큰 덕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전히 자신들이 소망하고 믿고, 간절히 구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내려주신 큰 은총이라고 여긴다. 동시에 그들은 완전한 정의, 스스로 꼭 맞으려고 애쓰는 성스러운 천사들의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정의에 그들이 얼마나 모자라는지도 잘 알고 있다.

150. 참된 덕은 쾌락의 시녀도 명예의 시녀도 아니다.

진정으로 독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분께 소망을 품는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족한 부분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이 만족해 하기 보다는 진리를 채우는데 애써야 한다. 그리고 자신 안에 기쁨을 주는 무엇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비 덕으로 돌리고, 치유받은 부분은 그분께 감사드리며,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간절히 기도드릴 것이다.

(계속)

성령세례 받는 방법



1. 성령세례 받는 방법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1:4-5) 그리하여 약 120여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되었던 성령님이 드디어 50일만에 오셨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2:1-4) ‘다른 언어’는 방언과 외국어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오신 것을 ‘성령세례’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을 이니라.” (행10:44-46)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

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행11:17)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령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세례를 받는 절차가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따라 하면 누구나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6889)

2. 회개해야

회개해야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139:23-24) 제가 청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부흥회 강사님 설교 듣고 그동안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한번 적어보자 하고 기도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벽에 찰고 흔들면서 꼭꼭 짜내어도 10개가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별로 없네... 하고 그냥 기도굴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회개는 사람 맘대로 안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개가 가능합니다.(행5:31,11:18) 하나님이 회개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롬2:4)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벧후3:9).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자격증 따듯이 회개도 그렇게 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나는 1%도 손해 보지 않는 '반성'은 할 수 있겠죠. 성령세례는 회개로 받는 것이지만 반성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고 싶은 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라." 돈 많은 그 부자 청년은 "구원 값이 너무 비싸네..." 고민하며 그냥 갔다고 했습니다.(마19:16-22) 그런데 삭개오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회개를 보시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음을 기쁘게 선포하셨습니다.(눅19:8-9) 삭개오의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6890)

3. 죄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죄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성령세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무조건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세례는 마음속에 은밀하게 죄를 숨겨두고 예수를 믿어보려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일체의 비밀이 없는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는, 아들을 잃은 주인공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범인을

‘용서’하려고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살인범은 자기는 이미 신에게 용서를 받았으면서 멋대로 마음의 짐을 털어낸 뻔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본 주인공이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했다는 거야?” 하며 좌절하는 모습을 다룬 영화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에 대한 ‘회개’까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5:23-24)고 합니다.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성령세례)을 받으리니’(행2:38)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통렬한 자복을 하고, 죄에 대해서 치루어야 될 대가를 치루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표시로 사람들 앞에서 물세례로 인증을 해야 성령세례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례식의 현장에서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891)

4.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한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집례하는데 어찌나 울며 발버둥을 치던지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낮을 심하게 가리는 아이가 머리를 만지려는 낫선(?)남자의 하얀 손이 무서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아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10년째 세례받기를 거부하는 어른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안 받는답니다.

안 받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죠. 사도들이 ‘받겠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세례가 주어집니다.’라고 하니 성령세례가 있는지도 몰랐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럼 그동안 우리가 헛민은 것이란 말이나?” 하면서 오히려 분이 가득하여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행5:32-33) 오늘날도 ‘성령’에 대한 얘기만 해도 이단이니 삼단이니 하며 색안경을 쓰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세례’는 초대교회에서 끝났다고까지 말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구원파’들은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묻고 다닙니다. 저는 ‘성령세례’는 받았습니까? 하고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구원파와 같은 취급을 받을까봐 차마 그렇게 묻지는 못하겠습니다. 성령세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았다고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

구주로 영접하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죄를 다 씻고, 주의 뜻만을 좇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세례를 구하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성령세례를 받기 위해 50일 정도를 기다렸습니다.(행2:1)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성령을 받으려고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세례를 구했는데 왜 지금 즉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았거나, 순종의 자세가 아니거나, 사사로운 욕심이나 호기심으로 구하는 것이거나... 아직 받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엡1:13) 자격이 되면 즉시로 성령세례를 받지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세례가 부여되기도 합니다.(행10:44) (6894)

7. 냉수 같은 시원한 기쁨

성령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①자신만 알 수 있도록 내적으로 조용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②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외적으로 요란스럽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성령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은 전 세기에 걸쳐 나라와 장소와 교파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는 천차만별입니다.

성령세례를 받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내적인 현상은 냉수를 마시는 것 같은 시원한 기쁨이 심령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요7:37-38)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벧전1:8)

제가 청년 때 성령세례에 대해 인식하고 처음 성령세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좋던지 활동하던 선교회 이름을 ‘기뻐하는사람들’이라고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이름(천주교의 세례명 같은 것)을 ‘최기쁨’이라고 지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령세례를 받으면 그 심령에서 기쁨이 뿜어져 올라와 저절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됩니다.(행2:46-47, 행4:31-35, 행9:20)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성령세례를 받아서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뜻입니다. 성령세례를 받으면 이와 같이 냉

수를 마신 것 같은 큰 은혜와 기쁨이 심령 가득 충만하게 됩니다. (6895)

8. 쓰러짐과 떨림

성령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힘없이 쓰러지거나 온몸이 떨리는 진동이 오기도 합니다.(요18:5-6, 마28:1-4, 마17:1-6, 행9:4, 계1:17)

어느 날 저는 책방 기도자리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잠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매일 중보기도하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한 5분?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시계를 보니 2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지? 시계가 고장났나? 분명히 두 시간 흘렀다는 것을 확인하니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다리가 풀려 스르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두 시간을 5분처럼 흐르게 하신 하나님의 엄위하심에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져 뻗어 있었는데 제 안에는 큰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18-19세기에 쓰여진 책에는 설교 중에 쓰러지는 사람들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날에는 안수 기도를 할 때 쓰러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에 부흥사들이 장풍(?)을 쏘면서 사람들을 쓰러 뜨리는 퍼포먼스를 했던 기억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세례를 받을 때 쓰러지고 떨리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교인들의 영적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교인들이 막 쓰러지고 진동도 오고 입이 비틀어져서 방언도 나오는 성령세례를 받아야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합니다. (6896)

9.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의 임재가 불처럼 뜨겁게 때로는 바람처럼 시원하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은 가청적(可聽的)으로,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과 같이 가시적(可視的)으로 임재하십니다.(행 2:1-4, 눅11:13, 요10:11, 행1:8, 엡5:18)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집회에서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부어지는 순간 그것이 육체에 뜨거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땀방울 떨어 수밖에 없죠.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무거움이나, 답답함, 매스꺼움, 토할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것을 '토설'이라고 합니다. 죄로 오염된 나의 심령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어두움이 튀어나와 도망치는 현상입니다. 온몸이 뜨거

워진다고 해서 실제로 몸에 열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불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태웁니다. 영적인 불을 받아서,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는 선교 현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헌신했지만 참담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가 큰 절망을 느끼며 기도할 때,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온몸과 마음이 불타오르듯 뜨거워짐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자신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고 훗날 감리교를 창설하게 됩니다. 성령이 뜨겁게 임하시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지성이 강한 분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방방 뛰는 사람들을 보고 교양 없는 사람이라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6897)

10. 방언과 예언

성령세례를 받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방언’이고 방언이 깊어지면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행2:17-18)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행2:4) 방언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언어의 종교적 현상입니다. 만나는 대상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듯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당연히 ‘신령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개역개정은 ‘방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방언을 모르면 “랄랄랄라라...” 하는 소리가 마치 할머니 귀에는 영어가 “썰랑썰랑 씨부리”는 소리로 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방언을 하면 그 의미가 귀에 들리고 방언해석(통변)도 가능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행19:6) 오늘날에도 신사도(新使徒)교회는 예언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초대 교회에서 끝났다고 하는 교단과 신학자들 쪽에서는 그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언이 나오려면 꽤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사도 예언사역자들이 바쁘니까 성령과 기도 없이 자기 의로 예언하면서 ‘기독교 무당’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세례를 받고 기도가 깊어지면 영이 예민해져서 예언이 나오기도 하는 것까지 부정하면 그것은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6898)

©최용우



(사진:최용우)

봄비

하루 종일 소리 없이 봄비가 내렸다. 창문을 열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정도로 조용히 내렸다. 아내는 실내에서 키우던 화분을 밖에 내놓고 비를 맞춘다.

어딘가 마당 보도블럭 틈새기에서 올라오던 상추를 화분에 옮겨심어 실내에 들여 놔었는데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서 한번 따 먹고 또 한번 따 먹어도 될 만큼 자랐다. 비를 흠뻑 맞춘 다음에 나의 한 끼 채소 섭취용으로 따먹어야겠다.

자연은 얼마나 경이로운가. 가끔 물을 뿌려 줄 뿐인데 햇볕과 공기만으로도 저렇게 잘 자라다니 하나님은 말없이 농사를 짓는 분이시다. 그저 사람은 아주 작게 거들 뿐이다. 알고 보면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삶에 나는 아주 작은 힘을 보탬 뿐이다. 그것이 무위(無爲)의 삶이다.

참 크다

힘들게 태화산 올라가는데
눈 앞에 딱 허니 대물(大物)이 보였다.
“우웠다 크다!”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좀 힘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몸에 비
해 장대한 크기의 성기가 얼굴에 웃음을
짓게 한다. ㅎㅎㅎㅎ 자고로 성기의 크기
는 남자의 힘과 권력을 상징한다.



인터넷에 각 나라별 남성 생식기 평균 크기 지도라는 것이 있었다. 호기심 발동
하여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수많은 나라 중에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서양쪽은 도
저히 넘사벽일 것 같고 중국, 한국, 일본의 순위다. 같은 동북 3국 만큼은.... 중국
10.89 일본 10.92... 그리고 한국은 북한과 함께 9.66 쯤장!

그래도 실망할 것 없다.

우리나라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한가한 시간

햇볕이 따뜻하여 오후 산책운동 시간에
금강수변공원을 걸었다. 날벼락공원이라는
곳에 흔들의자에 앉아 흔들 흔들 하다가
의자에 드러누워 하늘도 바라 보다가 카
메라로 눈앞에 있는 역새 사진도 찍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별반
다를 것 없이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를 보
낸다.

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아빠도 있고, 흔들의자에 앉아 서로 한 모금씩 커피
를 빠는 커플도 있고, 나무 데크에 앉아 간식을 먹는 사람도 있다. 서로서로 다른
사람들 상관하지 않고 자유스럽다.

나처럼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 있는 것을 못견뎌하는 사람들
도 많다. 어울리기를 좋아하면 어울려 놀면 되고, 혼자 놀기 좋아하면 그냥 혼자
놀면 된다.

뒤가 문제인가? 이 자유롭고 한가한 날에.

과자 부자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매월〈들꽃편지〉를 보내 드리면서 부록으로 다른 책 몇 권씩 함께 보내드리고 있다.

타국에 어떻게 송금을 하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른다. 그래서 선교헌금 대신 책을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난달에는 나의 책 〈우리 커피한잔 할까요?〉를 보내면서 사모님과 한 잔씩 타드시라고 미니 카누 두개를 책 사이에 붙여 보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당분간은 만날 수 없으니 그렇게라도 커피한잔 하고 싶었던 것이다.

선교사님께서 너무 감동한 나머지 곧바로 뒤를 바리바리 챙겨서 택배로 보내 주셨다. 비행기 타고 온 택배박스를 열어보고 우리 식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죄다 일본어로 쓰여 있어서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다.

갑자기 우리집이 과자 부자가 된 것 같다.



솔부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 애굽에서 먹던 리크(부추)를 먹고 싶어 모세를 원망하였다. 나일강 삼각지의 비옥한 땅에서 나는 채소들을 즐겨 먹던 그들은 애굽에서 인박한 음식들이 생각난 것이다. (민11:6). 부추의 히브리 원어 צרור(하찌르)는 ‘안뜰의 푸르름’이라는 뜻으로 마늘과 함께 정력제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을 지나 봄에 처음 올라오는 부추는 베어서 감추어놓고 신랑만 먹게 한다는 속담이 있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부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부추밭을 만들어 놓고 일년 내내 부추김치를 해 주셨었다. 그 부추의 뿌리 일부를 캐 와 화분에 심었다.

요즘 슈퍼마켓에 나오는 부추는 잎이 넓은 계량종으로 토종 솔부추 보다는 향과 아린맛이 덜하다. 아내가 부추를 조심스럽게 잘라서 가지고 들어갔다. 아내도 첫부추를 신랑만 몰래 즐겨?

광고와 실재

핸드폰 약정 끝나고 알뜰폰으로 바뀌어 4년째 쓰다 보니 배터리 수명이 짧아져 하루에 두 번씩 충전한다. 외출할 때는 보조배터리를 꼭 챙기는데, 핸드폰보다 먼저 산 보조배터리도 가끔씩 정신 줄을 놓고 깜빡깜빡한다.

그래서 보조배터리를 하나 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페이스북에 딱 성냥갑 만한 조그만 보조배터리 광고가 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보조배터리가 너무 커서 쪼꼬만 것을 보니 얼른 사고 싶었다. '메이드 인 차이나' 홍콩에서 발송해 주는 것이다.

약간 찜찜하기는 했지만 열흘만에 국제택배를 받았다. 그런데 이런! 생각보다 훨씬 크고 모양도 다르다.... 이거 사기 맞죠? 용량이 20000암페어라는 것도 의심스럽다. 어떻게 속임수 광고를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역시나 차이나!



최용우 서점

산책운동을 하다가 문득 요즘 자기가 팔고 싶은 책만 파는 '독립서점'이 암암리에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생각났다. 몇 군데 독립서점에 가 보고 잘만 하면 충분히 장사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독립서점은 과학관련 책만 파는 곳도 있었고, 어떤 곳은 시집만 파는 곳도 있고, 어떤 교회서점은 담임목사님 책을 위주로 파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런 곳을 재미있어 했다.

그렇다면 최용우의 책만 파는 <최용우 서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산책을 하다 말고 집으로 막 달려와서 책꽂이에 있는 나의 책을 전부 빼서 서점 매대처럼 방바닥에 짝 깔아봤다.

흠.... 이정도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책까지 깔면 한 50권은 깔아지는데, 아무래도 책을 조금 더 만든 다음에 <최용우 서점>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고양이가 아니니까

오늘날 정보는 구글을 통해, 재미는 유튜브를 통해 얻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빠르는데, 왜 굳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고양이는 책을 읽지 않는다. 나는 고양이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아니, 나는 책을 읽기 때문에 고양이가 아니다.



▲장강명이 쓴 <책, 이게 뭐라고>어르메 파넬과 <5년만의 신문여행>진거레출판 파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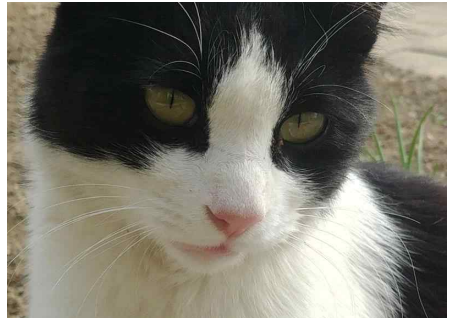
장강명은 그의 책<책, 이게 뭐라고>에서 학벌도 좋고 영어도 잘하지만 스스로 사표 낼 용기가 없어 아버지가 대신 사직서를 내준 젊은 엘리트의 모습을 <애완인간>이라 했다.

고양이는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사고(思考)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 심상이나 지식을 사용하는 마음의 작용, 개념·구성·판단·추리 따위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 작용) 할 줄 모른다.

책은 우리의 사고가 '가축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도구이다. 고로 책을 읽지 않는 뇌는 고양이의 뇌와 같다.

대장 고양이

거의 보름 동안 치열하게 싸우던 동네 '노란 대장 고양이'와 우리집 마당의 '꼬맹이'와의 싸움이 끝난 것 같다. 오늘 보니 노란 고양이가 꼬맹이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슬슬 피해 달아나는 것을 보니 새로운 세대의 젊은 대장 고양이가 탄생한 것 같다.



배가 다 갈라지고, 옆구리에 한주먹 털이 빠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면서 쫓고 쫓기는 싸움을 몇 날 며칠 하더니 드디어 서열정리가 끝난 것 같다. 어린 꼬맹이가 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우리 식구들이 잘 먹여주고 이빠해 줬더니 아무도 모르게 힘을 기르고 있었군!

오늘은 따뜻한 햇볕을 쬐며 마당에서 뒹굴 뒹굴 애교를 부리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이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꼬맹이라 부르지 않고 대장 고양이라 불러줘야겠다.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山行

▲제495회 운악산(동봉936m가평)2021.3.8.4명
경기도 가평에 있는 운악산에 이상호 정
주일 신예숙 최용우 4명이 다녀왔다. 공
주터미널에서 8시 출발, 11:30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목골가든'에서 점심 먹고
12:00 현등사 매표소를 들머리로 눈썹바
위-병풍바위-미륵바위-망경대-운악산 동
봉 정상에 올라섰다. 가평군과 포천시에서
세운 정상석 두 개가 있었다.



3km 남짓인 거리를 거의 3시간 가까이
올라가 정상 인증하고 잠시 휴식하며 간식도 먹었다. 하산은 남근석 바위를 지나
절고개-코까리바위-현등사에 도착하니 거기서부터는 차가 다니는 도로를 따라 편
하게 내려 왔다. 7Km거리에 휴식시간 포함 4:50분 걸었다. 이름에 '악'자가 들
어간 산 답게 기어 올라가는 구간이 많아 힘들었다. 집에 오니 밤 9:30분이다.

▲제496회 화악산(중봉1446m가평)2021.3.17.
경기도 가평군 화악산에 이상호 외 5명
이 다녀왔다. 보통 화악터널에서 출발하는
데 우리는 최단거리를 찾다가 지도에도
네비에도 안 나오는 공군부대 작전도로를
오르기로 하고 화악터널 상부 공군부대
입구까지 갔다.



그런데 공군부대 쪽에서 차들이 계속 내
려오느라 철조망 입구가 열려있었다. 냅다 차를 몰고 들어가 위로 계속 올라갔다.
5km 정도를 오르니 제법 넓은 공터가 있어 차를 댔다. 아찔한 고도이다.

화악산 정상에는 부대가 있어 일반인 출입금지구역이고 그 옆에 중봉이 정상을
대신하고 있어 중봉에 기어올라 인증사진을 찍었다. 중봉까지 거리는 짧지만 로프
와 발판의 연속이고 경사도 급했다. 중봉은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의 가장 중심 지
점이라는 '정중' 표시가 있었다. 여기가 우리나라의 배꼽인 셈이다.

▲제497회 명지산(제1봉1267m가평)2021.3.17

이상호 정주일 최용우 3명이 명지산에 올랐다. 최단거리 왕복 12km 5-6시간은 잡아야 하는데 조금 늦게 2:30분 입산을 했다. 익근리 입구에서 명지폭포까지는 평지여서 쉽게 걸었다. 그러나 갈림길에서 명지봉까지 해발 약 800m를 수직으로 올라가야 하는 엄청난 경사의 길이다. 한 시간에 1km를 오르기도 힘들었다. 산꼭대기에 걸려있는 해를 놓치면 안 된다며 부지런히 기어올랐다.



드디어 3시간만인 5:45에 정상 인증을 하고 다시 부지런히 하산을 한다. 명지폭포까지 달기도 전에 주변이 완전 어두워져 버렸다.

헤드랜턴에 의지하여 승천사까지 내려오니 입구에서 기다리던 전화차 사모님이 용감하게 절 마당까지 차를 운전하여 들어와 기다리고 있었다. 덕분에 1시간 단축하여 7:40에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부지런히 달려 내려왔다.

▲제498회 비학산207(일출봉252m)2021.3.26.

▲제499회 백운산(882m정선)2021.3.30

강원도 정선에 있는 백운산에 5명이 동행하였다. 논산 공주에서 올라온 양지든산팀이 세종에서 8시에 나를 싣고 3시간30분을 달려 정선 점재라는 골짜기에 도착. 입산 전에 이른 점심으로 매운탕을 먹고 12시에 등산을 시작했다.



흰구름이 늘 끼어 있다고 하여 백운산인데, 동강쪽으로는 칼로 자른 듯한 급경사의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강(東江)이 산자락을 굽이굽이 감싸며 흐르는 경관이 아름다워 조망이 좋았다.

정상까지는 2km 정도인데 워낙 가파르고 길이 험해서 속도가 나지 않는다. 여자들은 아예 중도에 포기하고 남정네들만 올라갔다 내려오니 3:40이다. 힘든 산행을 마치고 내일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두타산 산행을 위해 삼척 <신선놀이펜션>에 6시30분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제500회 두타산(1353m삼척) 2021.3.31. 이상호 외5

제500회 들산은 두타산(삼척)에 올랐다. 펜션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땃재고개(810m)에서 7:10분 출발하여 통골재를 지나 약 6km를 지루하게 건다 보니 9:55분 드디어 두타산 정상이다. 삼척과 동해에서 세운 정상석이 2개 있었다.

소문난 것처럼 골때리는(두타) 산은 아닌데 거리가 멀어서 힘들게 느껴진 것 같다. 두타(頭陀)란 속세의 번뇌를 떨치고 불도 수행을 닦는다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산이 높다보니 군데군데 눈이 있고 빙벽이 남아있었다.

오늘로 나는 들산 등산 500회를 했다. 이상호 목사님이 현수막을 깜짝 준비해 주시고 신예숙 권사님이 근사한 케익으로 500산을 축하해 주었다.

원점 회귀 하산하니 12:40분이다. 5시간40분 동안 12.5km 적당한 속도다.

46년만에 개방된 배틀바위를 가지는 제안이 있었지만, 다수가 동해바다 보기를 위해 속초항으로 가서 늦은 점심을 먹고, 정동진에서 바다를 보고, 또 열심히 달려 집에 오니 밤9:30분이다.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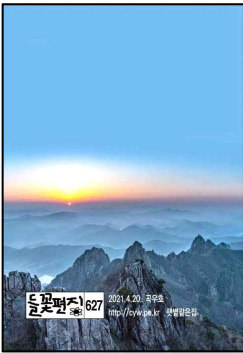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곡우(穀雨)-곡식들이 비를 좋아합니다

곡우는 곡식에게 필요한 비가 내린다는 절기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곡우 때 못자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곡우 날에는 부정탈 까봐 죄인도 잡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곡우 때에는 나무나 들판에 물이 오를 때입니다. 그래서 고로쇠나무의 수액을 이때부터 받아먹기도 했지요. 4월에는 논과 밭에 각종 씨앗들을 파종하기에 1년 중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월출산 일출(최윤식)



무거운 장비를 매고 월출산에 올라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새벽에 올라오는 해를 찍었습니다. 많은 수고와 발품이 들어간 귀한 사진입니다.

사진은 기다림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밤공기를 손을 비벼가며 참고 기다리다가 아침 여명을 뚫고 올라오는 일출의 순간을 맞이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평생 맛볼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을 찍은 사진을 햇별같은이야기 표지로 선듯 내주신 최윤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새책<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아침밥2>(399쪽17300원)이 4월13일 출판되었습니다. 하룻동안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따뜻한 말씀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거르면 몸 상하듯 말씀 밥상도 거르면 안 됩니다. 밥 드세요. 역대상 12장부터 예언서 전체를 1년 동안 묵상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49<바보일기>(396쪽23900컬러) -2021.2.25.일 출간

48<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168쪽11300컬러) -2021.1.20. 출간

47<하동-하나님과 동행하는 삶>(14300원 320쪽) -2020.12.31 출간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34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1.3월 재정결산

2021년 3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김광현 김교자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박종환 양은희 양희창
옥치오 장기갑 정경애 정호숙 주명혁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구글 새벽기도
성실교회 실로암교회 안디옥교회 예사전선교회 장사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지난달에는 모두 27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 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1.4월1일 현재 6908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CD, 전도자료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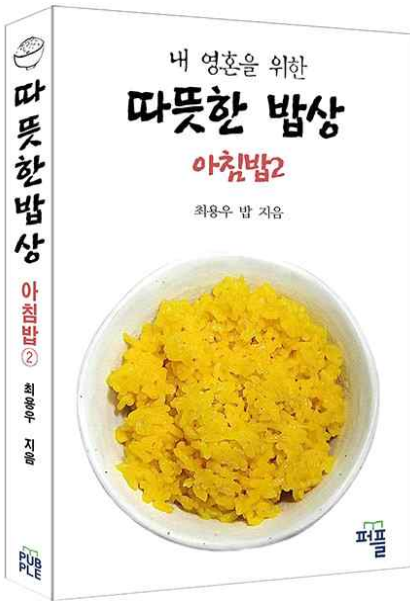
③도서출판 -그동안 50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6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문서,인터넷,복방선교,선교사,아동 각1곳씩)

⑥기독교피정숨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
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휴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
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
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장소와 동역자와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
하고 있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새로 나온 책

- 〈따뜻한 밥상〉시리즈 발행된 책
- 제1권 아침밥1 - 창세기1장 -역대상11장
 - 제2권 아침밥2 - 역대상12장 -말라기**
 - 제3권 점심밥1 - 시편 전체
 - 제4권 점심밥2 - 잠언 전도서
 - 제5권 저녁밥1 - 마태복음 -마가복음
 - 〈앞으로 나올 책〉
 - 제6권 저녁밥2 - 누가복음 -요한복음
 - 제7권 저녁밥3 - 사도행전-요한계시록

최용우 말씀묵상 시리즈
 398쪽 17,300원 퍼플

가르침이 적혀 있는 이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끊임없이 외워라. 그 가르침을 놓고 낮이든 밤이든 늘 명상하여라. 가르침을 끊임없이 곱씹어 보아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네 앞길이 평탄하리라.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으리라. (현대어성경 여호수아1:8)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시1:2)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정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복이 오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돈을 왕창 버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인한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값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개질을 하듯 한 땀 한 땀 묵상한 말씀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말씀한 절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참으로 그윽하고 향기롭습니다. 날마다 이런 복된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용우 저서



숲속의 아침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집을 나와 갈 곳 없어 방황하며 공원 의자에서, 도서관에서, 산속에서 수첩에 끄적거리며 눈물로 썼던 詩를 모아 첫 번째 시집으로 묶었습니다.
7,200원 138쪽 펴플



설레임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담백하게 그려낸 쉽고 유쾌하고 재미있고 심장이 발떡거리릴 만큼 감동적인 시집. 이 세상이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설레임으로 가득한 곳인지 깨닫게 됩니다.
6,700원 146쪽 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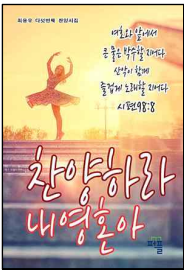
어부동의 아침

그림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고 조용하던 작은 산골마을 어부동에 살면서 호숫가를 거닐며 쓴 맑고 밝고 환하고 시원한 詩. 기분이 밝아지고 세상이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해집니다.
7,600원 150쪽 펴플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실제적인 기도들. 그냥 따라 읽다보면 어느새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14,300원 398쪽 펴플



찬양하라 내영혼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나니 오늘도 입으로 말로 글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14,300원 398쪽 펴플



천번을 부르주님 내아이는 찬양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처럼 저는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시를 일천편 써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34,600원 1044쪽 펴플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햇별같은집>에서 발행합니다.

*햇별같은집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cyw.pe.kr> *들꽃편지 <http://cyw.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214-21-0389-661 농협138-02-048495 하나은행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곶2길 5-7번지 기독교평생서터<햇별같은집>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27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